

# 국내 1위 감속기 업체 에스피지 “올해 폭스콘과 협업 확대할 것”

작년 중국 매출 60% 늘어  
전체 매출 12%·영업익 75% 성장

폭스콘 공장자동화에 제품 공급  
국내선 물류업체 납품 증가 예상  
올해 매출 4000억 안팎 기대



여영길 에스피지 사장은 “GE, 월풀, 일렉트로룩스 등 미국 대형 가전사 중심에서 고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지난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올해는 폭스콘과 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 사장은 “에스피지의 중국 칭다오 현지 공장을 3만3000㎡ 규모로 확장 중인 가운데 폭스콘이 우리 감속기를 사용해 자동화라인 구축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동화라인 설계를 진행 중이며 6~7월께 라인 구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의 아이폰 위탁생산으로 유명한 폭스콘은 로봇 생산, 플라스틱 사출을 비롯해 공장 자동화라인 구축 등도 하고 있다. “그 동안 에스피지의 로봇용 감속기를 사용해 왔던 폭스콘이 이번에 에스피지의 자동화라인 구축사업을 하면서 향후 양사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는 게 여 사장의 설명이다.

◆물류설비 매출 증가 예상  
에스피지의 지난해 매출은 3548억원으로 12.6% 늘었다. 영업이익은 181억원

으로 75.6% 증가했다. 여영길 에스피지 사장은 “GE, 월풀, 일렉트로룩스 등 미국 대형 가전사 중심에서 고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지난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올해는 폭스콘과 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 사장은 “에스피지의 중국 칭다오 현지 공장을 3만3000㎡ 규모로 확장 중인 가운데 폭스콘이 우리 감속기를 사용해 자동화라인 구축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동화라인 설계를 진행 중이며 6~7월께 라인 구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의 아이폰 위탁생산으로 유명한 폭스콘은 로봇 생산, 플라스틱 사출을 비롯해 공장 자동화라인 구축 등도 하고 있다. “그 동안 에스피지의 로봇용 감속기를 사용해 왔던 폭스콘이 이번에 에스피지의 자동화라인 구축사업을 하면서 향후 양사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는 게 여 사장의 설명이다.

◆물류설비 매출 증가 예상  
에스피지의 지난해 매출은 3548억원으로 12.6% 늘었다. 영업이익은 181억원

감속기는 회전운동을 하는 모터에 기어를 연결해 속도를 늦추면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일반 감속기는 공장의 생산설비와 사무자동화기기 등에 쓰인다. 정밀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에 까지 이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국내 감속기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에스피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시장 다변화로 극복하며 성장을 이어갔다. 올해는 물류, 반도체, 의료기기, 2차전지 등 산업에서 감속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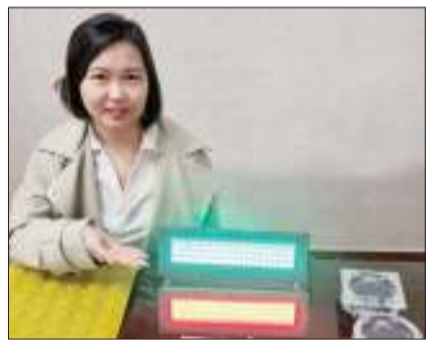
◆시장 다각화로 코로나 위기 돌파  
에스피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며 위기를 맞았다. 세계 각국에서 이동이 제한됐고 생산시설이 폐쇄되면서 당초 영업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를 회복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중국 소비가 회복되면서 하이얼, 하이센스, 미디어, TCL, 그리 등 중국 5대 가전사에서 공장 생산설비에 들어가는 감속기 주문이 몰려들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은 1304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60% 늘어나며 회사 실적을 이끌었다.

에스피지의 지난해 매출은 3548억원으로 12.6% 늘었다. 영업이익은 181억원

## 눈부심 없는 바닥신호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옴중기 경동이앤에스  
면발광으로 기존 제품 단점 보완  
부산·대구 등 지자체에 공급



바닥신호등은 거실등처럼 면 형태로 빛이 나오도록 제작해 기존 바닥신호등의 단점을 보완했다.

새로 개발한 제품은 자동차 후미등과 같은 디자인을 채택해 면 형태로 발광이 된다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 시험기관에

따르면 이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녹색은 18배, 적색은 10배 정도 빛이 조밀하고 균일해 눈의 피로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제품에 비해 유지보수가 간편한 것도 장점이다. LED 램프가 수명을 다했을 때 외함을 열고 내함을 꺼내 램프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을 시작했다. 부산, 대구, 경기 용인, 경북 청도 등에 제품을 공급했다.

곽수경 경동이앤에스 대표(사진)는 “바닥신호등의 고장을 미리 감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사전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신호등과 연동해 붉은색과 녹색으로 변하며 보행자에게 교통신호를 추가로 전달해주는 바닥신호등을 볼 수 있다. 바닥신호등이 무단횡단을 90%가량 줄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제품들은 LED(발광다이오드) 램프가 점 형태로 빛을 내면서 과도한 눈부심 현상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경동이앤에스의 ‘눈부심 방지 면발광

## “생활습관까지 처방하는 암 예방 시대 연다”

변석수 프로카젠 대표  
전립선암 등 유전자분석 서비스  
올해 말 출시 ... 7대 암으로 확대

“암 유전자 검사가 많지만 한국인에게 특화된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검사하는 유전자 숫자도 적죠. 국내 환자에게 가장 많은 20여 개 유전자를 분석하는 남성질환 예측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올해 말 출시할 계획입니다.”

변석수 프로카젠 대표(사진)는 21일 “한국인 유전자를 이용해 생활습관까지 처방하는 암 예방 시대를 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변 대표는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이다. 신장암 전립선암 등 비뇨기과 암 분야 명의로 손꼽히는 그는 2018년 10월 프로카젠을 창업했다.

변 대표는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찾아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오랜 기간 진행돼 병원을 찾는 환자를 보

면 안타까웠다”며 “암 환자 유전자를 토대로 사전에 위험도를 알려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전립선암 위험 유전자로 알려진 것은 BRCA 유전자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던 미국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암 예방을 위해 유방절제 수술을 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전립선암 위험도 높아진다. 전체 전립선암 환자 중 BRCA 유전자 변이 영향을 받는 환자는 10% 정도다. BRCA처럼 절대적 영향을 아니더라도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다양한 변이가 많다는 의미다.

변 대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립선암 환자 6500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그는 암 환자 3100명과 암이 없는 사람 8000명의 유전자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암 환자에게 특히 많거나 적은 스니프(단일유전자변이)를 수십 개 뽑아냈다. 스니프마다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암 연관성 점수가 가장 높은 20개를 뽑았다. 이들도 대로 암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사

람은 최소 두 배 이상 암 위험이 높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전문의와 공유해 암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운동, 식습관 등을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 대표는 “전립선암은 생기기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라이코펜이 많이 든 토마토, 붉은 색 과일과 채소, 콩으로 만든 비지 두부 등은 예방에도움이 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암 외에 다른 암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진과 협업해 유전자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다. 개인의 전체 유전자(홀 지놈)를 분석해 보관했다가 주기적으로 위험도 높은 유전자 새롭게 확인되면 알려주는 구독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헬스케어, 클리닉 등은 프로카젠의 가능성을 믿고 손을 잡았다.

변 대표는 “30억 명의 인체 유전자 중 아직 모르는 게 많다”며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채용에 신경 썼다”고 했다. 그는 “전립선암뿐 아니라 상위 5대 암, 7대 암으로 확장해나갈 것”이라며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 비뇨기과 암 예방 판별 솔루션 등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보톡스 사업 분리한 휴온스... 바이오파마 신설

휴온스가 보툴리눔독신 사업부를 떼어내 새 자회사인 ‘휴온스바이오파마’를 다룬다. 공적적인 인수합병(M&A)으로 성장세를 이어온 휴온스가 주요 사업부문을 모두 독립시켜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1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바이오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은 경영, 기획조정, 재무관리 부문과 함께 바이오본

부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본부는 보툴리눔 독신 제품의 해외 영업과 개발, 바이오제품 인허가 등을 담당한다. 이번에 통과한 안건은 이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분리하는 것으로, 휴온스글로벌은 지주회사 업무만 맡는다.

다음달 1일 신설되는 새 자회사는 휴온스바이오파마(가칭)다. 휴온스글로벌은 2019년 6월 말 보툴리눔독신 제품인 리스톡스를 출시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이 제품 판매와 추가 임상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미간주름 개선, 눈가

주름 개선 등의 용도로 식품·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리스톡스는 뇌졸중 후 근육경직, 사각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신설되면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10곳으로 늘어난다.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바이오파마의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장회사는 휴온스글로벌과 제약사업을 하는 휴온스,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을 판매하는 휴메디스 등 4곳이 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유한양행 조옥제 신임 사장체제 출범

유한양행은 조옥제 부사장(67·사진)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신임 사장은 1987년 유한양행에 입사한 후 병원지점장 이사, ETC 영업·마케팅 상무, 약품사업본부장 전무, 경영관리본부장 등 주요직을 거쳐 2017년 3월 부사장에 임명됐다. 조 사장은 “오랜 세월 몸담은 유한양행의 전문경영인으로 선임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모든 임직원과 함



께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400원, 우선주 410원의 현금 배당을하기로 의결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 에스씨엠생명과학 세포치료제 제조 허가 받아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식품·약품안전처로부터 점진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점진재생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에 근거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 제조업 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첨생법에 선 출기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 처리 공급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

### 성공을 부르는 습관 - 한경과 20년 컨설팅의 名家 -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가 만나

## 새로운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가 탄생하였습니다.

2021년 1월1일,  
한경닷컴과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는 기업컨설팅브랜드인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한경의 명성과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의 노하우로 남다른 기업컨설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hankyungleaders.com

한국의 명성과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의 노하우로 남다른 기업컨설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경닷컴 × Leaders  
ASSET ADVISORS

새롭게 출범한 한국경영지원본부와 함께할 기업컨설팅 전문가를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경영지도, 세무/회계, 법무-노무, 인사, 금융/부동산자산관리, IPO전문가

문의 1644-5731